

# 新行政首都建設이 地域經濟에 미치는 影響

金 鍾 基

▷ 目 次 ◁

- I. 序 論
- II. 地域別 地域總生産 推移
- III. 地域總生産 豫測模型
- IV. 地域別 地域總生産 推計
- V. 行政首都建設이 地域經濟에 미치는 效果
- VI. 結 論

## I. 序 論

1960年代 以後 서울은 급격한 人口成長으로 1980년에는 이미 830萬名이 넘는 超巨大都市로 발전하여 總人口의 22.3%, 全體都市人口<sup>1)</sup>의 39%가 서울市界內에 居住하고 있으며, 과

筆者：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 1) 行政區域上 '市'로 命名된 地域을 말함.
- 2) 金光錫 外, 『行政首都建設의 社會·經濟的 妥當性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80.
- 3) 서울의 人口는 1970~75年間 年平均 4.5%의 成長率을 보였으나, 1975~80年間에는 4.0%로 鈍化되어 1975~80年間的 全都市人口 年平均成長率인 4.5%보다 낮았으나 絶對人口增加는 1970~75年 사이의 年平均 27.3萬名 增加에서 1975~80年間에는 29.5萬名 增加로 늘어났다.

거의 人口增加趨勢로 보면 根本的이고 劃期的인 人口分散 혹은 人口抑制策이 없는 한 서울의 人口規模는 1986년에 1,000萬名, 1991년에는 1,160萬名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sup>2)</sup>.

이같은 서울의 人口集中은 深刻한 地域發展의 不均衡을 招來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市の 交通難, 住宅難, 地價昂騰, 各種 都市 서비스의 超過需要, 그리고 大氣와 水質汚染 등의 都市環境惡化와 같은 諸都市弊害問題를 惹起시키고 있으며 그 深刻度는 이미 限界線에 달하고 있다. 政府는 1970年代 初期부터 서울特別市 및 中央政府 次元에서 여러 形態의 人口增加抑制 및 人口疎散施策을 실시하여 人口成長率의 鈍化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제 增加人口의 絶對數는 오히려 增加하여 根本的인 서울의 人口成長抑制 혹은 人口疎散政策은 큰 實效를 거두지 못하였다<sup>3)</sup>.

서울의 人口增加는 自然增加 및 行政區域 改編 때문이기도 하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他地域으로부터의 轉入에 있으며 이는 서울이

首都로서 政治·行政·經濟·社會·文化 등 모든 分野의 中心地役割을 해 온 韓國의 首都機能의 特徵 때문이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보다 根本적이고 長期的인 人口再配置政策으로서 서울로부터 韓國의 中央集權的인 首都機能을 移轉하는 代案을 提示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莫大한 財政的 資金이 所要되고 國土 空間秩序에 미치는 效果가 至大하므로 計劃案의 分析 및 評價는 政策的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本稿의 目的은 新行政首都 建設計劃이 地域經濟發展에 미치는 效果를 評價하기 위한 것으로 第Ⅱ節에서는 過去 地域別 地域總生産推移의 특징을 살피고 第Ⅲ節에서는 地域總生産을 豫測하는 模型을 開發하며 第Ⅳ節에서는 開發된 模型을 利用하여 新行政首都를 建設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各各의 地域別 地域總生産을 推計하였다. 第Ⅴ節에서는 新行

政首都建設時를 非建設時와 比較하여 新首都計劃이 地域經濟發展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였으며 끝으로 第Ⅵ節에서는 研究結果에 대한 政策的 建議를 하였다.

## Ⅱ. 地域別 地域總生産 推移

우리나라에서 地域을 單位<sup>4)</sup>로 한 地域總生産統計資料는 1965年 以後부터 公表되었으며 서울시 總生産은 서울시가, 釜山直轄市 및 道別 地域總生産은 內務部가 主管하여 統計值를 調査·發表하기 때문에 이들의 合은 韓國銀行에서 推計되는 國民所得計定上의 國民總生産과 一致하지 않는다.

이러한 基本統計資料의 문제점을 안고 利用

〈表 1〉 地域總生産變化(1979年 不變價格基準)

(단위 : 10億원, %)

	1965		1971		1978		1965~78 年平均 成長率
	地域 總生産	全國對比	地域 總生産	全國對比	地域 總生産	全國對比	
서울	1,672	21.3	3,791	27.5	7,832	28.7	12.6
京畿道	680	8.7	1,359	9.6	3,617	13.3	13.7
江原道	413	5.3	648	4.7	1,073	3.9	7.6
忠清北道	391	5.0	582	4.2	914	3.3	6.7
忠清南道	642	8.2	984	7.1	1,646	6.0	7.5
全羅北道	619	7.9	881	6.4	1,304	4.8	5.9
全羅南道	1,009	12.8	1,389	10.1	2,161	7.9	6.0
慶尙北道	1,077	13.7	1,667	12.1	3,063	11.2	8.4
釜山·慶尙南道	1,258	16.0	2,352	17.1	5,387	19.7	11.8
濟州道	97	1.2	133	1.0	301	1.1	9.1
全 國	7,858	100.0	13,786	100.0	27,298	100.0	10.1

註 : 全國合計(GNP)는 地域別 조정으로 인하여 結果가 BOK發表 統計와 차이가 있음.

資料 : 서울시, 『서울시 統計年報』, 各年度.

內務部, 『住民所得年報』, 各年度.

4)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道를 意味함.

〈表 2〉 地域別 産業構造變化 (1979年 不變價格基準)

(단위 : 10億원, %)

	農林水産業	鑛工業	製造業		社會間接資本	其他 서비스	地域總生産
서울	1965	20(1.2)	294(17.6)	290(17.3)	166(9.9)	1,192(71.3)	1,672(100)
	1971	81(2.1)	714(20.4)	769(20.3)	522(13.8)	2,414(63.7)	3,791(100)
	1978	143(1.8)	1,949(24.9)	1,937(24.7)	1,291(16.5)	4,449(56.8)	7,832(100)
京畿	1965	360(53.0)	80(11.7)	70(10.2)	49(7.3)	191(28.1)	680(100)
	1971	509(37.5)	304(22.4)	288(21.2)	178(13.1)	368(27.1)	1,359(100)
	1978	712(19.7)	1,673(46.2)	1,648(45.6)	541(14.9)	691(19.1)	3,617(100)
江原	1965	167(40.3)	102(24.6)	10(2.4)	37(9.1)	107(26.0)	413(100)
	1971	228(35.1)	136(21.0)	23(3.6)	87(13.4)	198(30.5)	648(100)
	1978	304(28.3)	267(24.9)	96(8.9)	200(18.6)	303(28.2)	1,073(100)
忠北	1965	253(64.6)	35(8.9)	24(6.1)	20(5.1)	84(21.4)	391(100)
	1971	295(50.7)	87(15.0)	72(12.3)	45(7.7)	155(26.6)	582(100)
	1978	373(40.8)	185(20.2)	158(17.3)	114(12.4)	243(26.6)	914(100)
忠南	1965	421(65.6)	33(5.2)	23(3.6)	34(5.3)	154(23.9)	642(100)
	1971	530(53.8)	109(11.1)	92(9.4)	67(6.8)	278(28.3)	984(100)
	1978	691(42.0)	312(18.9)	283(17.2)	204(12.4)	439(26.7)	1,646(100)
全北	1965	424(68.5)	34(5.5)	31(5.1)	26(4.3)	134(21.7)	619(100)
	1971	497(56.3)	87(9.9)	84(9.5)	59(6.7)	239(27.1)	881(100)
	1978	574(44.0)	191(14.6)	183(14.1)	154(11.8)	386(29.6)	1,304(100)
全南	1965	699(69.3)	63(6.2)	48(4.8)	42(4.2)	205(20.3)	1,009(100)
	1971	776(55.9)	151(10.9)	138(9.9)	108(7.7)	354(25.5)	1,389(100)
	1978	903(41.8)	387(17.9)	359(16.6)	262(12.1)	608(28.1)	2,161(100)
慶北	1965	622(57.7)	104(9.6)	87(8.0)	73(6.8)	279(25.9)	1,077(100)
	1971	747(44.8)	246(14.8)	216(13.0)	180(10.3)	494(29.7)	1,667(100)
	1978	976(31.9)	751(24.5)	701(22.9)	503(16.4)	832(27.2)	3,063(100)
釜山·慶南	1965	594(47.2)	131(10.4)	127(10.1)	120(9.5)	413(32.8)	1,258(100)
	1971	632(26.9)	535(22.7)	523(22.2)	361(15.3)	824(35.0)	2,352(100)
	1978	869(16.1)	2,099(39.0)	2,078(38.6)	952(17.7)	1,467(27.2)	5,387(100)
濟州	1965	65(66.7)	3(2.7)	2(2.5)	6(6.2)	24(24.4)	97(100)
	1971	64(48.6)	6(4.2)	5(3.6)	17(12.7)	46(34.5)	133(100)
	1978	120(39.9)	8(2.7)	7(2.3)	95(31.5)	78(25.9)	301(100)
全國	1965	3,625(46.1)	879(11.2)	712(9.1)	573(7.3)	2,783(35.4)	7,858(100)
	1971	4,359(31.6)	2,435(17.7)	2,210(16.0)	1,624(11.8)	5,370(39.0)	13,786(100)
	1978	5,665(20.8)	7,822(28.7)	7,450(27.3)	4,316(15.8)	9,496(34.8)	27,298(100)

註 : 1) 全國合計(GNP)는 地域別 調整으로 인하여 結果가 BOK發表 統計와는 조금 차이가 있음.

資料 : 서울市, 『서울시 統計年報』, 各年度.

內務部, 『住民所得年報』, 各年度.

가능한 地域別 地域總生産 統計資料를 기초로 하여 1979年 不變價格基準으로 본 地域別 地域總生産 (GRP; Gross Regional Product)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첫째,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5~78年間의 高度經濟成長過程에서 地域間的 GRP 成長率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地域別로 細分하여 보면, 서울, 京畿道와 釜山·慶尙南道地域의 GRP成長率이 GNP成長率을 上廻하고, 기타 地域은 GNP成長率보다 낮은 GRP 成長率을 보여 주고 있다. 同 期間中 京畿道가 가장 높은 成長率을 보인 원인 중의 하나는 서울에 집중되는 經濟活動이 서울시 外廓地帶로 擴散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될 수 있다. 同 期間中 가장 낮은 成長率을 보인 地域은 全北, 全南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年平均各各 5.9%와 6%의 成長率을 보여 서울, 京畿道 등 高度成長地域과는 심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國民總生産(GNP)의 地域的 偏重現象이 深化되고 있다. 이는 地域間的 不均衡成長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서울, 京畿道 및 釜山·慶南地域의 GRP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감을 말한다. 1965년에 이 地域 GRP의 습이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46%이었으나 1978년에는 60.7%로 增加되었다. 특히 서울과 京畿道の 占有率이 월등히 增加되었는데 1965년에는 GNP의 30% 정도였으나 1978년에는 42%로 증가하였다. 반면, 全北과 全南의 경우에는 同 期間에 이 지역 GRP가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20.7%에서 12.7%로 급격히 낮아져 落後되어 가는 지역으로 變貌하고 있으며, 忠淸道地域도 同 期間에 13.2%에서 9.3%로 減少하였다.

끝으로 地域別 產業構造의 차이를 들 수 있다. 全國의 產業構造가 1次産業(農·林·水産業) 및 其他 서비스産業 중심에서 鑛工業 및 社會間接資本部門 중심으로 轉換하면서 각 地域의 產業構造도 일반적으로 農·林·水産業部門이 減少하고 鑛工業, 社會間接資本部門이 成長하여 近代的 產業構造로 向하고 있으나 地域間的 產業構造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의 경우 1965~78年 사이에 鑛工業部門이 약 18%에서 25%로, 社會間接資本部門이 약 10%에서 17%로 증가되었으나 기타 서비스部門은 약 71%에서 57%로 감소하였으며, 京畿道는 鑛工業 比重이 同 期間中에 약 12%에서 46%로 飛躍하였다. 이러한 產業構造의 변화는 釜山·慶南地域도 비슷하여 이 地域은 同 期間中에 鑛工業部門이 약 10%에서 39%로 증가된 반면, 農·林·水産業의 占有率은 47.2%에서 16.1%로 떨어졌다. 中部(忠淸道) 및 湖南地域은 同 期間中에 1次産業比重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1978年 현재 이 지역의 1次産業比重은 GRP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製造業部門의 比重은 20%를 훨씬 下廻하여 이 地域의 產業構造가 落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Ⅲ. 地域總生産 豫測模型

地域總生産을 豫測하는 方法은 國家經濟 成長展望을 地域間的 競爭力과 地域間 產業構造에 基礎를 두어 配分하는 Top-down方法 및 各 地域의 資源, 勞動力 및 產業構造에 의하여 地域總生産을 豫測하여 國民總生産을 推計

하는 Bottom-up 方法이 있다. 本 研究에서는 地域總生産의 豫測에 前者의 경우를 택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는 地域單位別 資料가 불충분하다는 實情에 비추어 볼 때, 地域을 단위로 하여 開發할 수 있는 豫測模型이 總量經濟豫測模型에 의해 國民總生産을 豫測하여 이를 地域間의 比重에 따라 配分하는 模型보다 信賴性이 적기 때문이다.

地域別 地域總生産 豫測은 地域의 立地條件과 産業別 經濟活動의 聯關性을 고려하여 1次産業(農·林·水産業), 鑛業, 製造業, 社會間接資本部門 및 기타 서비스部門의 5部門으로 구분하여 試圖하였다. 本 研究에 필요한 長期國民總生産 및 産業別 國民總生産 豫測은 별도로 提示된 KDI 長期豫測結果를<sup>5)</sup> 따르기로 한다.

5) 金光錫 外, 前揭書, 第2章.

6) 1次産業部門 生産과 地域의 特性關係는 過去資料의 分析으로 立證되었는데 1976~78年의 地域別 1次産業生産의 平均과 1965~67年의 地域別 1次産業生産의 平均値를 回歸分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RI_t = 27,429 + 1,262PRI_{t-1} \quad (2.16) \quad (19.21)$$

$$R^2 = 0.976 \quad D.W. = 2.56$$

여기서,

$PRI_t$  : 1976~78年 平均의 地域別 1次産業部門 附加價値額

$PRI_{t-1}$  : 1965~67年 平均의 地域別 1次産業部門 附加價値額

1次産業生産으로 3個年 平均値를 사용한 것은 1次産業部門이 氣候 등 經濟外的 要因의 影響을 잘 받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위 式에서 ( ) 안의 數値는  $t$ -統計値를 나타낸다.

7) 과거 1965~67年의 地域別 鑛業部門 生産과 1976~78年의 地域別 鑛業部門 生産의 回歸分析結果가 鑛業部門의 地域別配分이 거의 一定한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MIN_t = 2,043 + 1.64MIN_{t-1} \quad (3.68) \quad (43.0)$$

$$R^2 = 0.995 \quad D.W. = 2.0$$

( ) 안의 숫자는  $t$ -統計値임.

여기서,

$MIN_t$  : 1976~78年 平均의 地域別 鑛業部門 附加價値額

$MIN_{t-1}$  : 1965~67年 平均의 地域別 鑛業部門 附加價値額

## 1. 1次産業部門(農·林·水産業) 豫測模型

1次産業部門의 地域別 生産分布는 全國의 土地利用分布狀態(農地 및 山地 등) 및 漁場의 分布에 따른 地域別 特性에 따라 결정적인 影響을 받는 特性<sup>6)</sup> 때문에 1次産業의 地域別 豫測을 위하여 다음의 模型을 想定하였다.

$$PRI_{i,t} = PRI_t \times \left( \frac{\sum_{i=1965}^{1978} PRI_{i,t}}{\sum_{i=1965}^{1978} \sum_i PRI_{i,t}} \right) \dots \dots \dots (1)$$

$$PRI_t \equiv \sum_i PRI_{i,t} \dots \dots \dots (2)$$

여기서,

$PRI_{i,t}$  :  $t$ 年度  $i$ 地域의 1次産業部門 附加價値額

$PRI_t$  :  $t$ 年度 全國의 1次産業部門 附加價値額

즉, 地域別 1次産業部門 生産豫測은 과거 1965~78年 까지의 地域間 分布의 平均値를 基準으로 하여 이미 KDI模型에서, 豫測된 1次産業部門 總生産을 配分하는 方式을 사용한 關係로 行政首都移轉計劃의 影響을 받지 않는다.

## 2. 鑛業部門 豫測模型

鑛業部門의 地域別 總生産은 1次産業部門의 特性和 같이 주로 天然資源의 地域的 分布에 影響을 받아 地域別 生産의 比率이 一定한 것으로 假定하여<sup>7)</sup> 地域別 生産推計를 위하여 다음 模型을 想定하였다.

$$MIN_{i,t} = MIN_t \times \left( \sum_{t=1965}^{1978} MIN_{i,t} / \sum_{t=1965}^{1978} \sum_i MIN_{i,t} \right) \dots\dots\dots(3)$$

$$MIN_t \equiv \sum_i MIN_{i,t} \dots\dots\dots(4)$$

여기서,

$MIN_{i,t}$  : t年度 i地域의 鑛業部門 附加價值額

$MIN_t$  : t年度 全國의 鑛業部門 附加價值額

즉, 1965年에서 1978年까지의 地域別 鑛業部門生産에 의하여 各 地域의 平均配分率을 구하여 이미 豫測된 全國의 鑛業部門 總生産을 配分함으로써(式 3) 地域別 鑛業部門 生産을 豫測하기로 한다. 各 地域 鑛業部門 生産의 合은 全國 鑛業部門의 總生産과 같다(式 4).

### 3. 製造業部門 豫測模型

製造業部門의 地域別 生産分布는 農·林·水産業 및 鑛業部門과는 달리 各 地域의 産業構造의 變化, 政府의 經濟發展政策 등 製造業 生産에 影響을 주는 諸要因들이 지역마다 상이하하게 작용하므로 극히 可變의이다. 우리는 地域別 製造業部門 生産을 各 地域의 都市人

口 規模의 函數로 想定하였다.

$$MAN_{i,t} = f(URPOP_{i,t}) \dots\dots\dots(5)$$

여기서,

$MAN_{i,t}$  : t年度 i地域의 製造業部門 附加價值 生産額

$URPOP_{i,t}$  : t年度 i地域의 都市人口

製造業部門 生産額과 都市人口와의 關係를 살펴보기 위하여 1965~78年間的 地域別·時系列資料를 이용하여 위의 式 (5) 模型을 推定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ln MAN_{i,t} = -2.476 + 2.208 \ln URPOP_{i,t} - 3.57 D_1 + 27.7 D_1 - 2.015 D_1 - 2.28 D_1 \dots\dots\dots(6)$$

$$D_1 : \text{서울} = 1, \quad \text{他地域} = 0$$

$$R^2 = 0.9611 \quad D.W. = 1.9176$$

$$\rho = 0.94896$$

여기서  $D_1$ 은 「더미」變數로 서울의 경우 製造業部門 生産을 위한 資本 및 技術蓄積, 規模經濟效果(economies of scale), 都市化 經濟效果(urbanization economies)의 集積效果(agglomeration economies) 등이 他地域에 비해 월등히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구분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 回歸方程式은 時系列相關問題를 排除하기 위하여 Cochrane-Orcutt方法에 의하여 계산했으며 그 결과 統計的으로 信賴度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模型에서는 各 地域의 製造業部門 生産의 都市人口에 대한 彈性性이 同一한 것으로 假定하였다. 그러나 地域別로 製造業 生産에 대한 資本 및 技術의 蓄積이 다르고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效果 또는 集積의 經濟(agglomeration economies)效果 등이 다르기 때문에<sup>8)</sup> 同一한 彈性性值를 사용할 경우 地域

8) 各 地域別로 過去統計資料를 이용하여 分析한 결과 地域에 따라 相異한 彈性性值를 나타내었다.

例)  $\ln MAN^S = -5.221 + 2.18 \ln URPOP^S$   
           (-14.98) (53.95)  
 $R^2 = 0.9968 \quad D.W. = 2.12$   
 $\ln MAN^P = -10.929 + 3.095 \ln URPOP^P$   
           (-15.16) (32.61)  
 $R^2 = 0.9898 \quad D.W. = 2.56$   
 $\ln MAN^{CN} = -12.539 + 3.857 \ln URPOP^{CN}$   
           (-15.42) (29.63)  
 $R^2 = 0.9903 \quad D.W. = 1.71$

여기서, S, P, CN은 각각 서울, 부산 및 忠南을 나타낸다.

에 따라 彈性值가 過大 또는 過小評價될 염려는 있으나 推定期間이 長期間이므로 地域間 彈性值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假定한다.

式 (6)에 의하여 推計된 地域別 製造業部門 生産은 式 (7)과 같이 全國에 대한 各 地域의 比率로 바꾸어(normalization) 이미 推計된 全國의 製造業部門 生産을 配分함으로써 地域別 製造業部門 生産을 推定하도록 하였다.

$$MAN_{i,t} = MAN_t \times (MAN'_{i,t} / \sum_i MAN'_{i,t}) \dots \dots \dots (7)$$

$$MAN_t \equiv \sum_i MAN_{i,t} \dots \dots \dots (8)$$

여기서,

$MAN_t$  : t年度 全國의 製造業部門 總附加價值額

$MAN_{i,t}$  : t年度 i地域의 製造業部門 附加價值額

#### 4. 社會間接資本部門 豫測模型

社會間接資本部門의 生産은 製造業部門 生産의 函數로 想定하였다(式 9).

$$SOC_{i,t} = f(MAN_{i,t}) \dots \dots \dots (9)$$

여기서,

$SOC_{i,t}$  : t年度 i地域의 社會間接資本部門 附加價值 生産額

$MAN_{i,t}$  : t年度 i地域의 製造業部門 附加價值 生産額

위에서 想定된 社會間接資本部門의 生産額과 製造業部門 生産額의 相關關係를 살펴보기 위하여 1965~78年間的 地域別 時系列統計資料를 이용하여 式 (9)를 推定한 結果는 다음

과 같다.

$$\ln SOC'_{i,t} = 3.9134 + 0.66729 \ln MAN_{i,t} \dots \dots \dots (10)$$

(13.1) (32.0)

$$+ 0.52755 D_2 \dots \dots \dots (10)$$

(2.64)

$$D_2 : \text{서울} = 1, \quad \text{他地域} = 0$$

$$R^2 = 0.9659 \quad D.W. = 1.7326$$

$$\rho = 0.9139$$

여기서  $D_2$ 는 역시 「더미」變數로 서울의 경우와 他地域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時系列 相關問題를 排除하기 위하여 Cochrane-Orcutt 方法에 의하여 계산한 結果 各 獨立變數의 回歸係數 및 模型의 說明係數 모두 統計적으로 높은 信賴度를 보여 주고 있다.

式 (10)에 의하여 推計된 地域別 社會間接資本部門 生産은 式 (11)과 같이 全國에 대한 各 地域의 比率를 구하여 全國의 總社會間接資本部門 生産을 地域別로 配分함으로써 地域別 社會間接資本部門 生産을 推計하도록 하였다.

$$SOC_{i,t} = SOC_t \times (SOC'_{i,t} / \sum_i SOC'_{i,t}) \dots \dots \dots (11)$$

$$SOC_t \equiv \sum_i SOC_{i,t} \dots \dots \dots (12)$$

여기서,

$SOC_t$  : t年度 全國의 社會間接資本部門 總附加價值額

$SOC_{i,t}$  : t年度 i地域의 社會間接資本部門 附加價值額

#### 5. 其他 서비스部門 豫測模型

其他 서비스部門의 生産은 製造業生産規模와 都市人口 規模의 函數關係로 想定하였는데

(式 13), 이는 製造業部門의 成長이 地域經濟發展의 根幹을 형성하여 製造業部門成長의 乘數效果가 其他 서비스部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其他 서비스部門의 生産에 영향을 주는 다른 중요한 要素는 都市人口規模로서 都市의 産業構造가 점차 製造業中心에서 서비스 中心으로 構造變化를 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OSS_{i,t} = f(MAN_{i,t}, URPOP_{i,t}) \dots (13)$$

여기서,

$OSS_{i,t}$  : t年度 i地域의 其他서비스部門 附加價值 生産額

$MAN_{i,t}$  : t年度 i地域의 製造業部門 附加價值 生産額

$URPOP_{i,t}$  : t年度 i地域의 都市人口數

위에서 想定된 模型을 1965~78年間的 各地域別 時系列資料를 이용하여 推定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ln OSS'_{i,t} = 6.102 + 0.2716 \ln MAN_{i,t} + 0.53045 \ln URPOP_{i,t} + 1.086 D_3 \dots (14)$$

(26.2) (9.5) (10.4) (2.5)

$D_3$  : 서울=1, 기타지역=0

$R^2 = 0.9928$      $D.W. = 1.837$

$\rho = 0.914$

위의 式 (14)에서  $D_3$ 는 서울과 其他地域을 구분하는 「더미」變數이며, 結果로 나타난 各獨立變數의 回歸係數는 모두 統計的으로 상당

9) 行政首都 非建設時 地域別 人口 및 都市人口推計(附表 3 참조)는 별도로 想定된 模型에 의하였으며 자세한 模型의 說明은 金光錫 外, 前揭書, 第3章 참조 바람.

히 높은 信賴度를 나타내고 있다.

式 (14)에 의하여 推計된 地域別 其他서비스部門 生産은 式 (15)와 같이 全國에 대한 地域別 占有率을 구하여 全國의 總 其他 서비스部門 生産을 地域別로 配分함으로써 地域別 其他 서비스部門 生産을 推定하였다.

$$OSS_{i,t} = OSS_t \times (OSS'_{i,t} / \sum_i OSS_{i,t}) \dots (15)$$

$$OSS_t \equiv \sum_i OSS_{i,t} \dots (16)$$

여기서,

$OSS_t$  : t年度 全國의 其他 서비스部門 總附加價值額

$OSS_{i,t}$  : t年度 i地域의 其他 서비스部門 附加價值額

## Ⅳ. 地域別 地域總生産 推計

### 1. 行政首都 非建設時의 地域總生産

行政首都建設이 없을 경우의 地域別 地域總生産의 推定은 韓國開發研究院의 長期社會·經濟指標에서 推計된 全國의 國民總生産 및 産業別 國民總生産의 結果와 行政首都 非建設時에 推計된 地域別 都市人口 分布<sup>9)</sup>를 基礎로 第3節에서 想定된 地域總生産 推定模型에 적용한 結果는 아래와 같다.

1981~2001年 사이에 國民總生産(GNP)의 年平均 成長率이 約 8%로 展望되었는데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同 期間中에 國民總生産 成長率을 上廻하는 地域總生産(GRP) 成長率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 地域은 서울, 釜山·



慶南地域으로 나타났으며 京畿道地域과 慶北地域이 全國平均에 가까운 成長率을 보일 것으로 展望되어 根本적으로 過去 GRP成長趨勢가 延長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同 期間中에 忠北地域이 年平均 3.7%의 成長率로 가장 낮으며 忠南과 全北地域이 各各 4.4%, 4.5%로 낮은 成長率이 展望된다.

各 地域의 地域總生産이 國民總生産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살펴보면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1978년의 28.7%에서 2001년에는 44.9%를 占有할 것으로 展望되며<sup>10)</sup> 京畿道는 1978년의 13.3%에서 다소 減少하여 11.1%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서울과 京畿道를 합하면 2001년에는 GNP의 56%를 차지할 것이다. 釜山·慶南地域의 GRP가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큰 變動 없이 19.7%에서 20.1%로 나타날 것이다. 이 결과 현재 서울, 京畿 및 釜山·慶南地域에 偏重된 GNP比重은(1978년에 61.7%) 2001년에는 더욱 深化되

어 GNP의 76.1%까지 集中될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中部地域과 湖南地域의 地域總生産이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978년의 22%에서 2001년에는 11.6%로 급격히 減少되어 地域間의 不均衡的 成長이 더욱 深化될 것으로 판단된다.

産業別 國民總生産 成長率의 相違에 따라 全國의 産業構造變化는 1980~2001年 사이에 農·林·水産業部門과 其他 서비스産業部門이 國民總生産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점차 減少하고 鑛工業部門과 社會間接資本部門의 比重은 점차 增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一般的인 産業構造變化趨勢는 各 地域의 産業構造變化에도 適用이 되나 地域間에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表 4>에서 보면, 2001년에 서울, 京畿道 및 釜山·慶南地域 즉, 高成長地域의 産業構造는 자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地域總生産에서 차지하는 農·林·水産業部門의 比重이 극히 작고 鑛工業 및 社

<表 3> 行政首都非建設時 地域總生産 長期展望 (1979年 不變價格基準)

(단위: 10億원, %)

	1978	1981	1991	2001	1981~2001 年平均 成長率(%)
서울	7,832(28.7)	9,939(31.9)	27,479(40.9)	65,150(44.9)	9.9
京畿	3,617(13.3)	3,888(12.5)	7,799(11.6)	16,148(11.1)	7.4
江原	1,073(3.9)	1,119(3.6)	1,716(2.6)	3,030(2.1)	5.1
忠北	914(3.3)	959(3.1)	1,292(1.9)	1,987(1.4)	3.7
忠南	1,646(6.0)	1,734(5.6)	2,545(3.8)	4,141(2.9)	4.4
全北	1,304(4.8)	1,414(4.5)	2,092(3.1)	3,378(2.3)	4.5
全南	2,161(7.9)	2,475(7.9)	4,088(6.1)	7,254(5.0)	5.5
慶北	3,063(11.2)	3,421(11.0)	6,866(10.2)	14,403(9.9)	7.5
釜山·慶南	5,387(19.7)	5,921(19.0)	13,008(19.3)	29,114(20.1)	8.3
濟州	301(1.1)	279(0.9)	362(0.5)	576(0.4)	3.7
全國	27,298(100.0)	31,149(100.0)	67,248(100.0)	145,184(100.0)	8.0

註: ( ) 안의 數値는 GNP의 地域別 構成比임.

10) GRP 推定에 사용된 서울의 地理的 境界概念은 現行政區域內에 局限되지 않고 廣차 서울시 生産의 增加에 따른 서울 市 境界의 擴張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다.

會間接資本部門의 比重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보여 주고 있다. 반면 低成長地域으로 볼 수 있는 其他地域의 産業構造는 대체로 農·林·水産業部門의 비중이 높고(忠北의 경우 2001년에 農·林·水産業部門이 GRP의 41.9%, 忠南이 35.3%, 全北이

36.1%임) 鑛工業部門의 比重이 비교적 낮다. 특히 製造業部門의 比重은 극히 낮아 2001년에 忠北은 GRP의 9.5%에 해당하고 全北의 경우도 15.3%를 나타내고 있어 産業構造의 後進性을 보여 주고 있다.

〈表 4〉 行政首都非建設時, 産業別 地域總生産 長期展望(1979年 不變價格基準)

(단위 : 10億원, %)

	農林水産業	鑛工業	製造業	社會間接資本	其他 서비스業	地域總生産	
서울	1981	135(1.4)	2,746(27.6)	2,736(27.5)	1,928(19.4)	5,130(51.6)	9,939(100.0)
	1991	177(0.6)	9,158(33.3)	9,135(33.2)	6,076(22.1)	12,068(43.9)	27,479(100.0)
	2001	250(0.4)	23,380(35.9)	23,326(35.8)	16,789(25.8)	24,731(38.0)	65,150(100.0)
京畿	1981	768(19.8)	1,713(44.1)	1,688(43.4)	689(17.7)	718(18.5)	3,888(100.0)
	1991	1,008(12.9)	3,520(45.1)	3,460(44.4)	1,744(22.4)	1,527(19.6)	7,799(100.0)
	2001	1,421(8.8)	7,287(45.1)	7,148(44.3)	4,368(27.0)	3,072(19.0)	16,148(100.0)
江原	1981	342(30.6)	291(26.0)	103(9.2)	212(18.9)	274(24.5)	1,119(100.0)
	1991	449(26.2)	604(35.2)	159(9.3)	296(17.2)	367(21.4)	1,716(100.0)
	2001	633(20.9)	1,297(42.8)	255(8.4)	530(17.5)	570(18.8)	3,030(100.0)
忠北	1981	450(46.9)	164(17.1)	138(14.4)	130(13.6)	215(22.4)	959(100.0)
	1991	590(45.7)	208(16.1)	146(11.3)	211(16.3)	283(21.9)	1,292(100.0)
	2001	832(41.9)	335(16.9)	189(9.5)	387(19.5)	433(21.8)	1,987(100.0)
忠南	1981	790(45.6)	307(17.7)	278(16.0)	242(14.0)	395(22.8)	1,734(100.0)
	1991	1,036(40.7)	488(19.2)	419(16.5)	454(17.8)	567(22.3)	2,545(100.0)
	2001	1,461(35.3)	835(20.2)	674(16.3)	927(22.4)	918(22.2)	4,141(100.0)
全北	1981	659(46.6)	204(14.4)	197(13.9)	193(13.6)	358(25.3)	1,414(100.0)
	1991	865(41.4)	335(16.0)	318(15.2)	378(18.1)	514(24.6)	2,092(100.0)
	2001	1,220(36.1)	558(16.5)	518(15.3)	779(23.1)	821(24.3)	3,378(100.0)
全南	1981	1,100(44.4)	450(18.2)	421(17.0)	341(13.8)	584(23.6)	2,475(100.0)
	1991	1,443(35.3)	947(23.2)	878(21.5)	765(18.7)	933(22.8)	4,088(100.0)
	2001	2,036(28.1)	1,871(25.8)	1,709(23.6)	1,745(24.1)	1,602(22.1)	7,254(100.0)
慶北	1981	1,098(32.1)	876(25.6)	828(24.2)	627(18.3)	820(24.0)	3,421(100.0)
	1991	1,440(21.0)	2,352(34.3)	2,239(32.6)	1,523(22.2)	1,551(22.6)	6,866(100.0)
	2001	2,031(14.1)	5,582(38.8)	5,318(36.9)	3,819(26.5)	2,971(20.6)	14,403(100.0)
釜山·慶南	1981	955(16.1)	2,245(37.9)	2,225(37.6)	1,219(20.6)	1,502(25.4)	5,921(100.0)
	1991	1,253(9.6)	5,538(42.6)	5,492(42.2)	3,154(24.2)	3,063(23.5)	13,008(100.0)
	2001	1,767(6.1)	13,161(45.2)	13,052(44.8)	8,133(27.9)	6,053(20.8)	29,114(100.0)
濟州	1981	122(43.7)	8(2.9)	7(2.5)	79(28.3)	70(25.1)	279(100.0)
	1991	160(44.2)	17(4.7)	14(3.9)	80(22.1)	105(29.0)	362(100.0)
	2001	226(39.2)	34(5.9)	27(4.7)	136(23.6)	180(31.3)	576(100.0)

註 : ( ) 안의 數値는 地域總生産의 産業別 構成比임.

## 2. 行政首都建設時の 地域總生産

行政首都建設時の 地域別 地域總生産은 行政首都建設時の 地域別 人口分布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行政首都建設時の 地域別 人口分布 특히 都市人口를 이용하여 구한 地域總生産은 <表 5>에 나타나 있다<sup>11)</sup>.

1981~2001年間に GNP의 年平均成長率을 上廻하는 GRP成長率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 地域은 釜山·慶南 및 忠南이며 서울은 GNP와 같은 속도의 GRP成長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고 京畿道 및 慶北地域이 GNP成長率에 조금 못 미치는 成長率을 보일 것이다. 특히 忠南地域은 年平均 13.4%의 成長率로 全國에서 가장 높은 GRP成長率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忠南地域을 제외한 그밖의 落後地域은 行

政首都非建設時와 비슷한 成長率을 보일 것으로 展望된다.

行政首都移轉은 GNP의 地域別 比重에도 상당한 변화를 招來할 전망인데 서울은 2001年에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31.6%로 1978年의 集中度보다 약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忠南地域은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1978年의 6%에서 2001年에 14.7%로 증가될 展望으로 國土中央部의 활발한 經濟活動이 기대된다. 따라서 서울·京畿道地域의 GNP에 대한 比重은 2001年에 1978年 수준을 조금 上廻하는 43.2% 정도에 머물 것으로 豫測된다. 釜山·慶南地域은 行政首都建設로 커다란 변화 없이 GNP의 20.3%를 占有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같은 결과는 그동안 서울과 釜山을 중심으로 발전되던 國土利用의 形態가 行政首都建設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深化되지 않는

<表 5> 行政首都建設時 地域總生産 長期展望 (1979年 不變價格基準)

(단위 : 10億원, %)

	1978	1981	1991	2001	1981~2001 年平均 成長率(%)
서울	7,832(28.7)	9,939(31.9)	22,219(33.0)	45,917(31.6)	8.0
京畿	3,617(13.3)	3,888(12.5)	7,913(11.8)	16,770(11.6)	7.6
江原	1,073(3.9)	1,119(3.6)	1,736(2.6)	3,104(2.1)	5.2
忠北	914(3.3)	959(3.1)	1,307(1.9)	2,043(1.4)	3.9
忠南	1,646(6.0)	1,734(5.6)	7,504(11.2)	21,305(14.7)	13.4
全北	1,304(4.8)	1,414(4.5)	2,120(3.2)	3,491(2.4)	4.6
全南	2,161(7.9)	2,475(7.9)	4,143(6.2)	7,502(5.2)	5.7
慶北	3,063(11.2)	3,421(11.0)	6,967(10.4)	14,944(10.3)	7.7
釜山·慶南	5,387(19.7)	5,921(19.0)	12,972(19.3)	29,508(20.3)	8.4
濟州	301(1.1)	279(0.9)	368(0.5)	596(0.4)	3.9
全國	27,298(100.0)	31,149(100.0)	67,248(100.0)	145,184(100.0)	8.0

註 : ( ) 안의 數値는 GNP의 地域別 構成比임.

11) 行政首都建設時の 地域別 總人口 및 都市人口는 <附表 4> 참조. 이의 推計方法은 金光錫 外, 前掲書 第3章 참조. 行政首都建設에 따른 서울의 人口減少效果는 直接效果와 間接效果로 區分하였는데 直接效果는 政府에 의하여 推計된 移轉對象이 되는 公共機關의 任職員 및 그 扶養家族의 移動에 의한 것으로 이는 1987년부터 시작하여 1995년까지 完了될 計劃이며, 間接效果는 中央 行政機能이 서울에서 他地域으로 移轉됨에 따라 그 影響이 全體雇傭機會를 減少시키고 이는 결국 人口規模를 減少시킬 것으로 推定하였으며 서울서 減少되는 人口는 行政首都建設이 計劃된 地域으로 모두 옮기는 것으로 假定하였다.

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非建設時 서울 및 釜山을 중심으로 하는 大都市地域에 局限된 과거의 經濟發展形態가 行政首都建設로 中部圈이 發展됨으로써 보다 均衡性을 維持한 國土發展形態로 變化될 것이나 湖南地域은 역시 落後地域으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産業構造面에서도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忠南의 경우 1978年の 1次産業 中心의 前近代의 産業構造에서 鑛工業과 社會間接資本이 主軸을 이루는 高度化된 産業構造로 轉換될 것으로 1978~2001年 사이에 農·林·水産業部門의 比重은 45.6%에서 6.9%로 激減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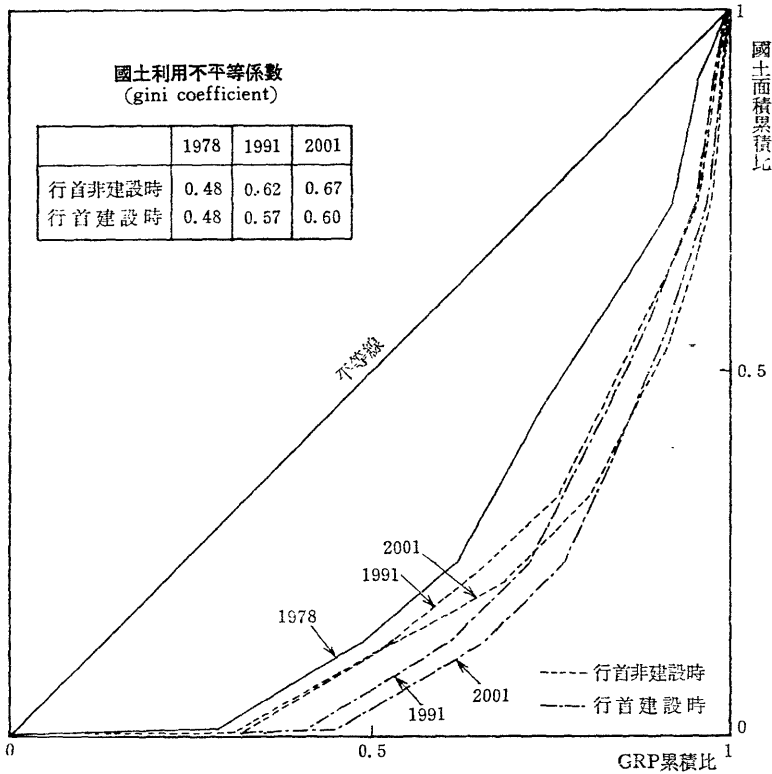
<表 6> 行政首都建設時 産業別 地域總生産 長期展望 (1979年 不變價格基準)

(단위 : 10億원, %)

	農林水産業	鑛工業	製造業	社會間接資本	其他 서비스	地域總生産	
서울	1981	135(1.4)	2,746(27.6)	2,736(27.5)	1,928(19.4)	5,130(51.6)	9,939(100.0)
	1991	177(0.8)	6,661(30.0)	6,638(29.9)	4,895(22.0)	10,486(47.2)	22,219(100.0)
	2001	250(0.5)	13,897(30.3)	13,843(30.1)	11,889(25.9)	19,881(43.3)	45,917(100.0)
京畿	1981	768(19.8)	1,713(44.1)	1,688(43.4)	689(17.7)	718(18.5)	3,888(100.0)
	1991	1,008(12.7)	3,557(45.0)	3,497(44.2)	1,751(22.1)	1,597(20.2)	7,913(100.0)
	2001	1,421(8.5)	7,514(44.8)	7,375(44.0)	4,474(26.7)	3,361(20.0)	16,770(100.0)
江原	1981	342(30.6)	291(26.0)	103(9.2)	212(18.9)	274(24.5)	1,119(100.0)
	1991	449(25.9)	606(34.9)	161(9.3)	297(17.1)	384(22.1)	1,736(100.0)
	2001	633(20.4)	1,305(42.0)	263(8.5)	542(17.5)	624(20.1)	3,104(100.0)
忠北	1981	450(46.9)	164(17.1)	138(14.4)	130(13.1)	215(22.4)	959(100.0)
	1991	590(45.1)	209(16.0)	147(11.2)	212(16.2)	296(22.6)	1,307(100.0)
	2001	832(40.7)	341(16.7)	195(9.5)	396(19.4)	474(23.2)	2,043(100.0)
忠南	1981	790(45.6)	307(17.7)	278(16.0)	242(14.0)	395(22.8)	1,734(100.0)
	1991	1,036(13.8)	3,014(40.2)	2,945(39.2)	1,663(22.2)	1,791(23.9)	7,504(100.0)
	2001	1,461(6.9)	9,948(46.7)	9,787(45.9)	5,544(26.0)	4,352(20.4)	21,305(100.0)
全北	1981	659(46.6)	204(14.4)	197(13.9)	193(13.6)	358(25.3)	1,414(100.0)
	1991	865(40.8)	338(15.9)	321(15.1)	380(17.9)	537(25.3)	2,120(100.0)
	2001	1,220(34.9)	575(16.5)	535(15.3)	798(22.9)	898(25.7)	3,491(100.0)
全南	1981	1,100(44.4)	450(18.2)	421(17.0)	341(13.8)	584(23.6)	2,475(100.0)
	1991	1,443(34.8)	956(23.1)	887(21.4)	768(18.5)	976(23.6)	4,143(100.0)
	2001	2,036(27.1)	1,926(25.7)	1,764(23.5)	1,787(23.8)	1,753(23.4)	7,502(100.0)
慶北	1981	1,098(32.1)	876(25.6)	828(24.2)	627(18.3)	820(24.0)	3,421(100.0)
	1991	1,440(20.7)	2,376(34.1)	2,263(32.5)	1,529(21.9)	1,622(23.3)	6,967(100.0)
	2001	2,031(13.6)	5,751(38.5)	5,487(36.7)	3,911(26.2)	3,251(21.8)	14,944(100.0)
釜山·慶南	1981	955(16.1)	2,245(37.9)	2,225(37.6)	1,219(20.6)	1,502(25.4)	5,921(100.0)
	1991	1,252(9.7)	5,435(41.9)	5,388(41.5)	3,106(23.9)	3,179(24.5)	12,972(100.0)
	2001	1,767(6.0)	13,050(44.2)	12,941(43.9)	8,131(27.6)	6,560(22.2)	29,508(100.0)
濟州	1981	122(43.7)	8(2.9)	7(2.5)	79(28.3)	70(25.1)	279(100.0)
	1991	160(43.5)	17(4.6)	14(3.8)	81(22.0)	110(29.9)	368(100.0)
	2001	226(37.9)	35(5.9)	28(4.7)	139(23.3)	196(32.9)	596(100.0)

註 : ( ) 안의 數値는 地域總生産의 産業別 構成比임.

〔圖 1〕 國土利用不平等線(Lorenz Curve)



는 반면, 鑛工業部門은 17.7%에서 46.7%로 增加되며 社會間接資本部門도 14.0%에서 26.0%로 增加될 것으로 展望된다. 其他地域의 産業構造는 行政首都非建設時와 比較하여 커다란 變化가 없을 것으로 豫測되었다.

### V. 行政首都建設이 地域經濟에 미치는 效果

行政首都非建設時 우리나라의 長期的인 國土開發形態는 根本的으로 서울과 釜山을 中心으로 하는 大都市地域의 高度成長과 其他地域의 低成長으로 인한 不均衡成長으로 특징지어

지는 過去趨勢의 延長으로 不均衡成長이 더욱 深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러한 地域經濟發展形態에 대하여 行政首都建設·移轉이 가져올 效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의 地域總生産은 1981~2001年間에 年平均 9.9%의 成長率에서 8.0%로 鈍化되어 國民總生産의 成長率과 같게 될 것으로 豫測되며, 2001년에 GNP에서 차지하는 GRP의 比重도 行政首都非建設時의 44.9%에서 31.6%로 緩和되어 行政首都建設·移轉이 서울의 過度한 成長을 鈍化시킬 것으로 展望된다.

둘째, 行政首都가 移轉할 곳으로 假定된 忠南地域은 行政首都 非建設時 1981~2001年間에 年平均 4.4%의 地域總生産成長率이 行政

首都建設時에는 年平均 13.4%로 刮目할 만한 成長을 하게 되어 2001년에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2.9%에서 14.7%로 增加될 展望이다. 뿐만 아니라 이 地域의 産業構造도 2001년에 1次産業이 35.3%로 主宗을 形成하는 落後된 産業構造에서 鑛工業이 46.7%로 主宗을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行政首都의 建設은 서울로 集中되는 經濟活動의 制動에 큰 效果를 가져 올 것이며 國土發展方向은 서울 및 釜山을 중심으로 하는 兩極中心의 不均衡發展이 緩和되고 國土中央部の 集中的인 開發로 國土의 均衡發展에 寄與할 것으로 豫상되며, [圖 1]에서와 같이 國土利用 不平等係數(gini coefficient)도 2001

年에 0.67에서 0.60으로 낮아질 것으로 豫상되고 있다(圖 1 참조). 그러나 行政首都建設時의 不平等係數가 非建設時의 不平等係數보다는 낮아졌으나 1978年과 比較하면 오히려 惡化될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의 原因은 行政首都建設에 관계없이 江原道 및 湖南地域이 계속 落後된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V. 結 論

本稿에서는 서울의 人口過剩集中에 따라 아

〈附表 1〉 1人當 國民總生産의 長期展望 (1979年 不變價格基準)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1人當 GNP 增加率(%)	人口(千명)
	10億원	100萬弗 <sup>1)</sup>	원	弗 <sup>1)</sup>		
1 9 7 8	27,604	57,033	745,671	1,541	9.9	37,019
1 9 7 9	29,732	60,686	781,066	1,614	4.7	37,605
1 9 8 0	29,666	61,293	776,658	1,605	-0.6	38,197
1 9 8 1	31,149	64,357	802,665	1,658	3.3	38,807
1 9 8 2	33,641	69,506	853,031	1,762	6.3	39,437
1 9 8 3	36,332	75,066	906,397	1,873	6.3	40,084
1 9 8 4	39,239	81,072	962,991	1,980	6.3	40,747
1 9 8 5	42,378	87,558	1,023,178	2,114	6.3	41,418
1 9 8 6	45,768	94,562	1,087,436	2,247	6.3	42,088
1 9 8 7	49,430	102,128	1,156,203	2,389	6.3	42,752
1 9 8 8	53,384	110,297	1,230,018	2,541	6.4	43,401
1 9 8 9	57,655	119,122	1,309,389	2,705	6.5	44,032
1 9 9 0	62,267	128,651	1,394,808	2,882	6.5	44,642
1 9 9 1	67,248	138,942	1,486,111	3,070	6.5	45,251
1 9 9 2	72,628	150,058	1,583,724	3,272	6.6	45,859
1 9 9 3	78,438	162,062	1,688,037	3,488	6.6	46,467
1 9 9 4	84,714	175,029	1,799,592	3,718	6.6	47,074
1 9 9 5	91,491	189,031	1,918,815	3,964	6.6	47,681
1 9 9 6	98,810	204,153	2,046,518	4,228	6.7	48,282
2 0 0 1	145,184	299,967	2,836,955	5,861	6.7	51,176

註: 1) 換率은 弗當 484.0원을 적용하였다.

資料: 金光錫 外, 『行政首都建設의 社會·經濟的 妥當性 研究』.

기되는 많은 都市問題의 解消와 國民總生産의 地域的 偏重의 深化現象을 緩和하고 均衡的 國土發展을 꾀할 수 있는 代案으로 政府에서 推進하여 온 行政首都建設·移轉計劃이 地域經濟發展에 미치는 效果를 우리나라 經濟全般 및 國土開發에 관한 長期的인 展望 또는 諸假定을 基礎로 하여 살펴보았다. 行政首都建設·移轉計劃이 地域經濟發展에 미치는 效果는 서울의 地域總生産 成長率을 鈍化시킬 뿐만 아니라 國民總生産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減少시키는 반면 中部圈의 發展을 촉진시킴으로써

서울·釜山 中心의 兩極發展形態가 鈍化되고 不均衡的 發展이 緩和될 것이다.

過去 數年 동안 檢討되어 오던 行政首都建設計劃은 莫大한 財政的 負擔 및 諸 政治·經濟·社會的인 與件으로 留保되었으나 地域總生産 豫測模型은 地域開發計劃을 위한 地域別 生産豫測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行政首都建設·移轉에 따른 波及效果는 서울의 人口分散 政策 및 國土計劃에 參考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附表 2〉 産業別 國民總生産의 長期展望 (1979年 不變價格基準)

(단위 : 10億원, %)

	農林·水産業 (構成比)	鑛工業(構成比)		社會間接資本 <sup>1)</sup> (構成比)	서비스業 및 <sup>2)</sup> 其他(構成比)	國民總生産 (構成比)
		製造業(構成比)				
1978(實績)	5,785(21.0)	7,646(27.7)	7,279(26.4)	4,695(17.0)	9,478(34.3)	27,604(100.0)
1979(實績)	6,170(21.0)	8,380(28.5)	8,008(27.3)	5,038(17.2)	9,784(33.3)	29,372(100.0)
1980	6,293(21.2)	8,472(28.6)	8,096(27.3)	5,340(18.0)	9,561(32.2)	29,666(100.0)
1981	6,419(20.6)	9,006(28.9)	8,622(27.7)	5,660(18.2)	10,064(32.3)	31,149(100.0)
1982	6,580(19.6)	9,933(29.5)	9,476(28.2)	6,226(18.5)	10,902(32.4)	33,641(100.0)
1983	6,745(18.6)	10,957(30.2)	10,471(28.8)	6,848(18.8)	11,782(32.4)	36,332(100.0)
1984	6,914(17.6)	12,085(30.8)	11,570(29.5)	7,533(19.2)	12,707(32.4)	39,239(100.0)
1985	7,087(16.7)	13,330(31.5)	12,785(30.2)	8,286(19.6)	13,675(32.2)	42,378(100.0)
1986	7,264(15.9)	14,703(32.1)	14,128(30.9)	9,115(19.9)	14,686(32.1)	45,768(100.0)
1987	7,482(15.1)	16,173(32.7)	15,541(31.4)	10,027(20.3)	15,748(31.9)	49,430(100.0)
1988	7,706(14.4)	17,742(33.2)	17,048(31.9)	11,030(20.7)	16,906(31.7)	53,384(100.0)
1989	7,938(13.8)	19,428(33.7)	18,668(32.4)	12,133(21.0)	18,156(31.5)	57,655(100.0)
1990	8,176(13.1)	21,234(34.1)	20,404(32.8)	13,346(21.4)	19,511(31.4)	62,267(100.0)
1991	8,421(12.5)	23,167(34.5)	22,260(33.1)	14,681(21.8)	20,979(31.2)	67,248(100.0)
1992	8,674(11.9)	25,252(34.8)	24,264(33.4)	16,149(22.2)	22,553(31.1)	72,628(100.0)
1993	8,934(11.4)	27,524(35.1)	26,448(33.7)	17,764(22.6)	24,216(30.9)	78,438(100.0)
1994	9,202(10.9)	30,002(35.4)	28,828(34.0)	19,540(23.1)	25,970(30.6)	84,714(100.0)
1995	9,478(10.4)	32,702(35.7)	31,423(34.3)	21,494(23.5)	27,817(30.4)	91,491(100.0)
1996	9,762(9.9)	35,645(36.1)	34,251(34.7)	23,643(23.9)	29,760(30.1)	98,810(100.0)
2001	11,877(8.2)	54,343(37.4)	52,218(36.0)	37,613(25.9)	41,351(28.5)	145,184(100.0)

註 : 1) 建設業, 電氣, 가스 및 水道事業, 運輸·倉庫 및 通信業.

2) 其他 서비스 및 海外部門.

資料 : 金光錫 外, 前掲書.

〈附表 3〉 行政首都 非建設時 地域別 人口 吳 都市人口 推計

(단위: 千名, %)

年次	全 國		서 울		釜 山		京 畿		畿 畿		江 原		忠 北					
	總人口	都市人口	都市化率	全國對比人口	全國對比人口	全國對比人口	全國對比人口	全國對比人口	全國對比人口	全國對比人口	全國對比人口	全國對比人口	全國對比人口	全國對比人口				
	人口	人口	率	人口	人口	人口	人口	人口	人口	人口	人口	人口	人口	人口				
1979 (實績)	37,355	20,497	54.9	8,114	21.7	3,035	8.1	4,726	2,216	46.9	1,815	475	26.2	1,448	349	24.1		
1981	38,807	21,336	55.0	8,701	22.4	3,189	8.2	4,383	2,142	48.9	1,905	510	26.8	1,555	364	23.4		
1986	42,088	25,068	59.6	10,185	24.2	3,809	9.1	4,668	2,561	54.9	1,927	579	30.0	1,573	414	26.3		
1991	45,251	28,879	63.8	11,620	25.7	4,473	9.9	4,953	3,017	60.9	1,935	648	33.5	1,581	465	29.4		
1996	48,282	32,706	67.7	13,007	26.9	5,161	10.7	5,239	3,501	66.8	1,931	714	37.0	1,582	515	32.6		
2001	51,176	36,463	71.3	14,350	28.0	5,847	11.4	5,530	3,996	72.3	1,917	774	40.4	1,578	563	35.7		
州																		
年次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總人口	都市人口	都市化率	全國對比人口	全國對比人口	全國對比人口	全國對比人口	全國對比人口	全國對比人口	全國對比人口	全國對比人口	全國對比人口						
1979 (實績)	3,000	729	24.3	2,362	671	28.4	4,007	1,231	30.7	4,982	2,160	43.4	3,380	1,356	40.1	457	161	35.2
1981	3,073	748	24.3	2,541	717	28.2	4,249	1,304	30.7	5,256	2,211	42.1	3,489	1,286	36.9	467	165	35.3
1986	3,153	861	27.3	2,592	818	31.6	4,450	1,513	34.0	5,573	2,623	47.1	3,649	1,513	41.5	510	191	37.5
1991	3,211	975	30.4	2,624	919	35.0	4,631	1,726	37.3	5,875	3,062	52.1	3,797	1,755	46.2	551	219	39.7
1996	3,247	1,088	33.5	2,639	1,015	38.5	4,791	1,935	40.4	6,161	3,516	57.1	3,932	2,005	51.0	591	248	42.0
2001	3,262	1,195	36.6	2,639	1,101	41.7	4,932	2,131	43.2	6,434	3,967	61.7	4,058	2,256	55.6	629	278	44.2

資料: 金光錫外, 前掲書



〈附表 4〉 行政首都建設時 地域別人口 및 都市人口 推計

(단위: 千名, %)

年次	全		國		서 울		釜 山		京 畿		江 原		忠 北			
	總人口	都市人口	都市化率	全國對比人口	全國對比率	人口	全國對比人口	全國對比率	人口	都市人口	都市化率	人口	都市人口	都市化率		
															人口	都市人口
1979 (實績)	37,355	20,497	54.9	8,114	21.7	3,035	8.1	4,726	2,216	46.9	1,815	475	26.2	1,448	349	24.1
1981	38,807	21,336	55.0	8,701	22.4	3,189	8.2	4,383	2,142	48.9	1,905	510	26.8	1,555	364	23.4
1986	42,088	25,068	59.6	10,172	24.2	3,809	9.1	4,668	2,561	54.9	1,927	579	30.0	1,573	414	26.3
1991	45,251	28,879	63.8	9,699	21.4	4,473	9.9	4,953	3,017	60.9	1,935	648	33.5	1,581	465	29.4
1996	48,282	32,706	67.7	10,184	21.1	5,161	10.7	5,239	3,501	66.8	1,931	714	37.0	1,582	515	32.6
2001	51,176	36,463	71.3	10,650	20.8	5,847	11.4	5,530	3,996	72.3	1,917	774	40.4	1,578	563	35.7

年次	全		北 京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總人口	都市人口	都市化率	人口	都市化率	人口	都市化率	人口	都市化率	人口	都市化率	人口	都市化率					
														人口	都市人口	都市化率	人口	都市人口
1979 (實績)	3,000	729	24.3	2,362	671	28.4	4,007	1,231	30.7	4,982	2,160	43.4	3,380	1,356	40.1	457	161	35.2
1981	3,073	748	24.3	2,541	717	28.2	4,249	1,304	30.7	5,256	2,211	42.1	3,489	1,286	36.9	467	165	35.3
1986	3,166	874	27.6	2,592	818	31.6	4,450	1,513	34.0	5,573	2,623	47.1	3,649	1,513	41.5	510	191	37.5
1991	5,132	2,896	56.4	2,624	919	35.0	4,631	1,726	37.3	5,875	3,062	52.1	3,797	1,755	46.2	551	219	39.7
1996	6,070	3,911	64.4	2,639	1,015	38.5	4,791	1,935	40.4	6,161	3,516	57.1	3,932	2,005	51.0	591	248	42.0
2001	6,982	4,895	70.1	2,639	1,101	41.7	4,932	2,131	43.2	6,434	3,967	61.7	4,058	2,256	55.6	629	278	44.2

資料: 金光錫 外, 前掲書.

▷ 參 考 文 獻 ◁

金光錫 外, 『行政首都建設의 社會·經濟的 妥當性 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80.

內務部, 『住民所得年報』, 各年度.

서울特別市, 『서울시 統計年報』, 各年度.

Ballard, K.P. and N.J. Glickman, "A Multi-regional Econometric Forecasting System: A model for thd Delaware Valley,"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17, 1977.

Ballard, K.P. and R.M. Wendling, "The National-Regional Impact Evaluation System: A Spatial Model of U.S. Economic and Demographic Activity",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20, 1980.

Crow, R.T., "A Nationally Linked Regional Econometric Model,"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13, 1973.

Klein, L.R. and N.J. Glickman, "Econometric Model-Building at Regional Level",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 7, 1977.

Milne, W.J., N.J. Glickman and F.G. Adams, "A Framework for Analyzing Regional Growth and Decline: A Multiregion Econometric Model of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May 1980.